



바. 논의 진행

- 정재영 대학원 대표(위임/대리참석, 이하 정재영 위원) : 인상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 안 올리면 좋겠으나 올리는 경우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여 학교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다.

※ 대학원 요구사항

대학원 공용연구실 환경 개선 (의자 및 컴퓨터 교체), 무선 네트워크 환경 개선, 강의실 기자재 유지보수, 공용연구실 24시간 운영, 장학금 혜택 확대, 대학원별 공간배정, 대학원 홈페이지 리뉴얼 계획 수립 및 이행

- 정원오 위원장 : 요구사항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다. 덧붙여 대학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학교의 안을 설명하다.

※ 대학원 요구사항에 대한 학교의 방안

1. 대학원생 사용 공간 환경 개선

가. 대학원 공용연구실 환경 개선 (의자 및 컴퓨터 교체)

⇒ 강의실을 우선으로 환경 개선 진행 중. 2019년에 대학원 공용연구실 우선 진행

나. 무선네트워크 환경 개선

⇒ 대학 전체 무선네트워크 환경 개선 사업 진행 (2019년 예산 약 5천만원 배정)

다. 빔프로젝터 장비 유지보수 및 구매 설치

⇒ 월 유지보수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구입 후 교체 진행 중. 2016~2017년에 승연관 강의실 빔프로젝터 교체 (1407호는 2019년 교체 예정)

2.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가. 공용연구실 24시간 운영의 문제

경비실이 있는 새천년관과 정보과학관을 제외하고는 출입관리 문제로 11시30분경 잠고 있음. 다만, 철야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으나, 도중에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안 및 출입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장학금 혜택 확대의 문제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약 30% 비율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학부는 약 20%)

다. 대학원별 활용 공간 요구

학교에 유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별 활용공간을 제공하기 어려움

라. 대학원 홈페이지 리뉴얼 계획 수립 및 이행

각 대학원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계획 수립을 요청 전달 예정 (대학원별 진행)

- 정재영 위원 : 등록금 인상 안 확정 후 그에 따른 대학원의 요청이 발생하자 개선 계획을 진행하는 듯하다고 언급하고, 등록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요청하다.
- 정원오 위원장 : 의자,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의 교체는 시기의 문제이고, 다른 곳을 우선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진행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하였음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분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다.
- 조은기 위원 : 대학은 이미 기금을 일반 운영비로 쓰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로 봐야 하고, 인상분이 추가 배정된다기 보다는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다. 덧붙여 적자구조는 우리 대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립대학 전반의 문제임을 설명하다.

- 정재영 위원 : 대학원별 공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다.
- 정원오 위원장 :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학교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부족하고, 몇 년 전에 많은 논의 후에 공용연구실을 추가로 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정재영 위원 : 대학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및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등을 정리해서 공유해주면, 대학원별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안하다.
- 조은기 위원 : 학교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명시한 자료를 대학원 대표 위원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다.
- 정원오 위원장 : 적절한 답변 및 학교 안을 정리하여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다.

사. 심의 결과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2. 안건명 : 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 안

가. 경과 : 최초상정

나. 발의부서 : 기획처

다. 심의 요청사항 : 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 안 심의

라. 세부내용

(단위 : 원)

계열	학제개편 이후 학번(2018학년부터)					학제개편 이전 학번	
	학과	1학년~ 2학년1학기	2학년2학기 ~4학년				
			1안	2안	3안		
인문계열	인문융합자율학부	3,523,800	3,342,000	3,300,000	3,342,000	영어학과	3,342,000
						일어일본학과	3,342,000
						중어중국학과	3,342,000
						신학과	3,342,000
사회계열	사회융합자율학부	3,523,800	3,342,000	3,300,000	3,342,000	사회과학부	3,342,000
						사회복지학과	3,342,000
						경영학과	3,342,000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3,523,800	3,445,500	3,827,500	3,642,200	신문방송학과	3,445,500
			3,839,000			디지털컨텐츠학과	3,839,000
공학계열	IT융합자율학부	3,523,800	3,839,000	3,827,500	3,839,000	컴퓨터공학과	3,839,000
						소프트웨어공학과	3,839,000
						정보통신공학과	3,839,000
						글로벌IT학과	3,839,000
입학금	568,000						
0학점 수강신청	200,000						

마. 논의 진행

- 정원오 위원장 : 학부 등록금 안 중 1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학부 내에 등록금을 차등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학부 내의 세부전공별 입학(편제)정원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등록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학부 내의 전공별로 등록금을 차등하는 것은 채택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 이동찬 위원 : 1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2안과 3안의 경우 여전히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언급하다. 1학년과 동일하게 전체 동일한 등록금액이 책정되는 안을 추가로 제안하다.
- 송현종 위원 : 1~2학년과 3~4학년의 구분 자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등록금액과 비교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다.
- 조은기 위원 : 현재 1학년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이후 학년에도 적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논란 등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덧붙여 미컨 및 IT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해당 안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이동찬 위원 :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경우 1학년때와 동일한 금액을 등록금액으로 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당장은 가장 적을 수 있고, 2안과 3안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발언하다. 덧붙여 수업료와 실습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정원오 위원장 : 우선 수업료와 실습비의 구분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2안과 3안의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안이고, 전체가 동일한 등록금액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저항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학사 일정이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다. 또한 미컨학부내에 전공별 정원을 구분하면 학부제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됨을 부연 설명하다.
- 송현종 위원 : 복수전공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른바 실습비 미납부자에 대해 실습실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다. 덧붙여 원칙적으로는 미컨학부를 중심으로 등록금 책정 안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의견을 묻겠다고 하다.
- 이동찬 위원 : 미컨학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묻되, 복수전공자의 등록금 책정 안이기도 하므로 전체에게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하다. 신방전공은 현재 시스템이나 정책 적용으로는 여전히 실습 환경이 나아지기 어려우므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송현종 위원 : 신방전공의 실습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다.
- 조은기 위원 : 과도기 단계이므로 다소 아쉽거나 어려운 부분은 감수해야 하고, 신방전공자들에게 디컨전공이나 IT학부와 같은 등록금액을 책정하게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방전공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 또한 2학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분포를 보고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다.
- 이동찬 위원 : 실습실 확대 방안을 질의하고, 실습실 및 기자재 사용 등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질의하다.

- 정원오 위원장 : 새천년관과 미가엘관에 미권학부 실습실과 1학년의 실습실을 만들 예정이며, 실습비 개념을 교육비 개념으로 바꾸면서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설명하다. 또한 다시 학교 안을 작성하여 자료 전달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바. 심의 결과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III. 폐회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8. 12. 28

위의 사실을 확인함.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원오



조은기



임영인 (불참)

윤지상(불참)

이선영 (위임/대리참석)

정재영



이동찬



송현종



이혜숙 (불참)

허 범 (불참)